

류협의 문학리론저서 《문심조룡》에 대한 연구

부교수 최충혁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평이 없이는 문학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1권 324페이지)

문학비평은 문학의 새로운 형상분야를 탐색하고 작품창작과정을 바로잡아주는 문학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력사적으로 문학은 문학비평에 의하여 총화되고 평가되어 왔다.

중국에서도 문학비평은 문학의 발전에서 큰 역할을 놀았으며 중국문학비평연구는 중국문학사연구를 심화시키고 외국문학연구분야의 성과를 풍부히 하며 그와의 비교속에서 조선문학비평사를 보다 과학적으로 연구체계화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준다.

중세중국문학발전의 전성기가 당나라, 송나라시기였다면 중국문학비평발전의 고조기는 그보다 앞선 위진남북조시기(220년—589년)였다. 이 시기 문학비평은 이전 시기의 문학비평과는 달리 자기의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발전하였으며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도 이전 시기에 비할수 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 대표적성과가 바로 류협의 문학리론저서인 《문심조룡》에 반영된 비평에 관한 론의이다. 《문심조룡》은 중국문학비평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문학리론저서로서 위진남북조시기까지의 중국문학리론과 비평발전의 총화로 되며 《문심조룡》에서 제기한 문학리론 및 비평리론들은 이후의 중국문학비평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문심조룡》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정도에서 진행되였다. 《중국문학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5(2006)]와 《외국문예학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7(2008)]에서는 류협의 《문심조룡》에서 제기한 기본문예관점과 문학사적분석, 창작론, 비평론 등에 대해 체계를 잡아 일정하게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관형식의 서술로서 《문심조룡》이 중국문학비평사에서 차지하는 지위로 보아 그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토대하여 중국문학비평사연구의 일환으로 위진남북조시기 문학비평의 총화인 《문심조룡》의 구성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론증하며 여기에서 제기한 창작실천적문제와 비평에 관한 론의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게 분석하려고 한다.

2. 본론

2.1. 《문심조룡》의 구성체계의 특징

류협(465—532?)은 자가 언화이며 동완 거현(지금의 산둥성 거현)사람이다. 서진(265년—316년)말년에 란이 일어나자 그의 조상이 북방에서부터 강남으로 옮겨왔으며 그후

로는 경구(지금의 강소성 진강)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한다. 류협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으며 집이 가난하여 장가를 들지 못했으나 진취성이 있고 꾸준하여 경서를 통달했다고 한다. 20살 남짓하여 지금의 강소성 남경시 자금산에 있는 정림사로 들어가 불문에 의탁하였으며 중들을 도와 10여년간 불경을 정리하였다. 그의 대표적문학리론저서인 《문심조룡》은 바로 이 시기에 창작되었다고 한다. 그의 저작으로 《문심조룡》외에 《멸혹론》, 《량나라 건안왕이 만든 석성사 성상의 비문》이 전해지고있다.

《문심조룡》은 제나라(479년-502년) 말기에 완성되었으며 총 10권 50개의 편으로 되어있다.

《문심조룡》은 그 구성체계에서 이전 시기의 리론저서들과는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문심조룡》의 구성체계의 특징은 첫째로, 체계가 상당히 짜이고 정연한것이다.

류협이 《문심조룡》을 쓴 목적은 문학창작을 선도하자는것이였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류협은 전체적인 책의 구성을 머리말에 해당되는 《서지》편외에 《문지추뉴》, 《론문서필》, 《해정석채》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문지추뉴》 즉 《글의 중추》는 첫번째 《원도》편부터 다섯번째 《변소》편까지에 해당된다. 이 5개 편에서 그는 문학창작에서 준수하여야 할 총적원칙을 논하였다. 이 5개의 편은 다시 앞의 3개 편과 뒤의 2개 편 두 부분으로 가를수 있다. 앞의 3개 편에서 류협은 창작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썼고 뒤의 2개 편에서는 더 나아가 창작발전의 근본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썼다. 즉 여기에는 문학의 본도와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문제 등 류협의 문예관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있다.

다음 《론문서필(문필에 대한 서술)》은 여섯번째 《명시》편부터 25번째 《서기》편까지의 20개 편에 해당된다. 이 20개 편에서 그는 당시 문학에서 쓰이던 33가지의 각종 문체의 연원과 그 대표적인 작가,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부분인 《해정석채(감정과 어휘수식에 대한 분석)》는 26번째 《신사》편부터 49번째 《정기》편까지의 24개 편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창작실천적문제에 대한 논의와 비평에 관한 부분이다. 26번째 《신사》편부터 45번째 《물색》편까지의 20개 편에서는 창작실천적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다음 46번째 《시서》편부터 49번째 《정기》편까지의 4개 편에서는 비평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문심조룡》의 구성체계

1-5편	원도, 정성, 종경, 정위, 변소	문예관에 관한 문제	문지추뉴
6-25편	명시, 악부, 전부, 송찬, 축맹, 명잡, 퇴비, 애조, 잡문, 해은, 사전, 제자, 론설, 소책, 격이, 봉선, 장표, 주계, 의대, 서기	서로 다른 문체의 연원, 그 대표적인 작가, 작품 분석	론문서필

26-45편	신사, 체성, 풍골, 통변, 정세, 정채, 용재, 성률, 장구, 려사, 비홍, 파식, 사류, 런자, 은수, 지하, 양기, 부회, 총술, 물색	창작에서 제기되는 이론 실천적문제에 대한 논의	해정석채
46-49편	시서, 재략, 지음, 정기	비평과 관련한 논의	해정석채
50편	서지		머리말격

이렇게 놓고볼 때 《문심조룡》은 상당히 짙고 정연한 구성체계를 갖추고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매 부분의 논리성이 비교적 강하고 내용상 호상 연관되어있으며 말하자는 내용이 매우 명확히 표현되고있다. 《문심조룡》과 같이 엄밀한 논리적구성을 갖춘 이론 및 비평저서는 중국문학비평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문심조룡》의 구성체계의 특징은 둘째로, 그 분량이 방대할뿐아니라 문예학의 전반 분야 즉 문예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작가와 작품, 창작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문제, 비평에 대한 견해 등을 포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구성폭이 상당히 넓다는것이다.

《문심조룡(文心雕龍)》은 문학의 근본을 밝히고 작품을 다듬고 련마한다는 뜻으로서 문예관과 형상원리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와 주장을 담고있다.

《문심조룡》의 분량이 방대할뿐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다양하고 풍부하며 구체적이라는것은 《론문서필》과 《해정석채》부분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류협은 《론문서필》 즉 《명시》편부터 《서기》편의 20개 편을 서술하면서 문체를 《문》과 《필》의 두 부류로 나누고 앞의 10개 편에서는 시, 악부, 부, 명문 등 운이 있는 《문》 즉 운문에 대해 론하였고 뒤의 10개 편에서는 사전, 제자산문, 론설문 등 운이 없는 《필》 즉 산문에 대하여 론하였다. 실례로 류협은 《명시》편의 마감에서 4언시와 5언시의 창작적요구를 총괄하여 《4언은 올바른 시체로서 우아하고 부드러운것이 기본이고 5언은 부차적인 시체로서 맑고 아름다운것이 기본이다. 아름다운것과 실속있는것은 서로 다르게 쓰이며 오직 재능만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그 특징들에 대하여 론하였다. 그리고 류협이 론한 33가지 문체를 보면 남조시기 량나라의 소통(501-531)이 쓴 책인 《문선》에 수록되어있지 않는 경서, 력사, 제자 등 전문학술저서들뿐아니라 족보, 장부, 방술, 점서, 법령, 법제, 계약서, 증서, 통첩, 고소장 등도 포함되어있어 조비, 룡기, 지우 등 당대 문인들이 론한 문체의 범위를 크게 뛰어넘었다. 이를 통해서도 저서가 취급한 문체의 범위가 아주 넓다는것을 알 수 있다.

《해정석채》부분에서는 창작의 일반적규칙의 각도에서 창작의 구체적방법을 론하였다. 류협의 이러한 논점은 창작과정의 여러 구석구석까지 포괄하고있으며 문제론의의 폭과 심도에서 이전 시기의 문인들을 크게 초월하였다. 류협은 이 부분에서 문학과 시대와의 관계문제는 물론 작가의 현실체험, 창작적인 구상과 구성형식에 관한 문제, 풍격과 문체, 어휘와 문장구사 등 작가의 창작기교와 작품의 형상생리 등을 포함한 창작원론적인 문제들, 작품의 감상과 비평원칙, 비평가의 자질과 창작적기량 등 비평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

하여 매우 넓은 범위에서 논하였다.

이처럼 《문심조룡》은 그 구성체계에서 째이고 정연하며 분량이 방대하고 구성의 폭이 넓은 특징을 가지고있다.

2.2. 《문심조룡》의 중요내용

《문심조룡》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첫째로, 문학의 본도와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 문학과 시대와의 관계문제에 대한 일련의 새롭고 심화된 논의들이다.

우선 문학의 본도에 대하여 새롭게 논의하였다.

류협은 《원도》편에서 글의 근본원천은 다름아닌 만물의 리치 즉 《도》이며 글의 근본내용은 바로 《도》를 표현하는것으로서 《도》의 표현형식이 바로 글이라고 하였다. 《도》는 천지만물속에서 표현되고 천지만물은 또 여러가지 글로 표현되는바 《하늘에는 하늘의 글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글이 있으며 만물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흥을 일으켜 문자로 씌여진다.》라고 하였다. 그는 문장을 바로 이 《원도》와 《심(마음)》으로 작품을 관통시키고 《신비》와 《리치》로 가르침을 시행하는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원도》, 《신비》는 불교세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그가 불교적인생관이 추구하는바를 《심》, 《리치》와 같은 유교원리에 근거하면서도 여기에 불교적내용과 원리를 첨부하여 자기 식의 절충적인 견해와 관점을 제기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견해에는 유교가 지배하던 시기에 불교를 믿었던 그의 세계관적제한성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다음으로 류협은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물색》편에서 문학의 반영대상인 자연과 창작의 주체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류협은 《물색》편에서 《봄과 가을이 바뀌면 음양이 바뀌고 즐거움과 시름이 바뀌듯이 사물이 변하면 마음도 달라진다.》, 《세월에는 그에 따르는 사물이 있고 사물에는 그에 따르는 모양이 있으며 감정은 사물에 따라 달라지고 글은 감정에 따라 쓴다.》라고 하였다. 자연의 변화, 다양한 사물현상이 사람의 마음속에 각이한 감정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한것은 유물론적인 그의 미학견해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는 자연에 의하여 환기된 감정정서가 문학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고 보았다. 류협은 《명시》편에서 《사람은 천성적으로 일곱가지 감정을 타고나며 사물에 따라 다른 감정을 느낀다. 감정을 느끼면 그 뜻을 시로 읊게 되니 이 어찌 자연스러운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전부》편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 만물을 내려다보면 자연히 감정이 동한다. 사물을 보고 감정이 동하니 그 뜻은 필시 명백하고 우아하다. 사물은 감정에 의해 그려지니 그 글은 필경 묘하고 아름다운것이다.》라고 하였다.

자연경치와 문학과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류협은 더 나아가서 《적은것으로 많은것을 종합한다.》라는 창작원칙을 제기하였으며 창작에서 마땅히 《강산의 도움》을 충분히 리용하는데 주의를 돌리며 대자연속에 들어가 리로운것을 섭취하여야 한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 창작원칙은 오늘날의 견지에서 보면 일반화의 원리를 논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현실과 문학의 관계문제에서 사회적인간의 미학정서적활동의 산물인 문학을 단순한 자연생리적현상으로 보는것과 같은 폐단도 드러내고있다.

물론 류협은 시문학의 정서적기초, 생활적바탕의 본질적의미를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고 문학의 형상원천을 자연에만 국한시키고 인간생활과 결부시키지 못한 제한성을 발로시켰으나 자연현실에서 환기된 인간의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 시문학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비교적 옳게 인식하였다.

류협은 또한 문학과 시대와의 관계문제에 대하여서도 논의하였다.

문학과 시대와의 관계문제는 주로 《시서》편에서 논의되었다. 문학과 시대와의 관계에 대해 논하면서 류협은 글의 변화는 인정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흥함과 쇠함은 시대와 더불어 변한다는 관점을 제기하였다. 그는 문학생격의 변화는 시대와 사회현상의 변화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요인들에는 정치가 흥하는가 망하는가, 사회가 정돈되었는가 혼란되었는가, 학술사조의 면모는 어떠한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것들은 문학생격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류협은 《가요와 글의 리치는 세상과 함께 달라지게 되니 그 문풍은 통치자들을 움직이고 그 여파는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였다. 즉 시대는 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또 문학은 시대와 사람들에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변증법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문학과 시대와의 관계문제를 논한 류협의 견해는 당시로서는 진보적인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문심조룡》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둘째로, 창작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논의이다.

창작상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은 주로 《신사》편으로부터 《물색》편까지의 20개 편에서 논의되었다.

류협이 논한 창작문제는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류협이 논한 창작문제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창작적구상에 대한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창작과정에 처음으로 맞다들게 되는것이 바로 창작적구상에 관한 문제이다. 류협은 《신사》편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류협은 창작적구상은 예술적상상활동으로 충만된 과정이라는데 대하여 밝혔다. 그는 예술적상상활동이 형체나 모양의 속박을 받음이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진행되며 상상활동에서 주관적감정은 시종 객관적사물과 어울려 움직인다고 하였다. 류협은 예술적상상의 이러한 특징을 《정신이 사물과 함께 노닌다》는 말로 종합하였다.

류협은 이러한 상상활동으로 충만된 창작적구상과정에는 반드시 강한 주의집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문학적구상을 하는데서 공허하고 조용한것이 귀중하며 훌륭한 글을 써내려면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공허하고 조용한 정신은 구상을 할 때 주의력을 집중하게 하고 주객관적요인의 간섭을 막아냄으로써 훌륭한 창작적효과를 거두게 한다고 보았다.

류협이 논한 창작문제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문학작품의 구성과 풍격문제에 대한 논의이다.

류협은 《용재》, 《부회》, 《장구》 등의 편에서 창작에서의 구성문제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체성》, 《정세》, 《풍골》 등의 편에서는 글의 풍격에 대한 문제를 논하였다.

류협은 글의 구성에 대해 논하면서 《용재》편에서 《훌륭한 글을 쓰자면 먼저 세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즉 시작에서 감정을 설정하여 위치를 잡고 중간에서 일을 따져 실례를 들며 나중에 어휘를 골라 중심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작품창작에서 먼저 내용에 맞는 감정정서를 바로 포착하고 양상을 정하며 형상적론리를 따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개해나가고 문학적인 어휘구사로 작품의 형상성을 높일것을 주장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류협은 《부회》편에서 감정과 뜻은 정신과 같고 사상적내용은 골수와 같으며 문체는 피부와 같고 운과 선률은 소리와 같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류협은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감정과 뜻을 포함한 사상적내용과 문체, 운, 선률의 네 부분으로 나누고 그것을 정신, 골수, 피부, 소리에 비교하여 글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호상관

계를 밝혔다. 《장구》편에서 류협은 작품창작에서 논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아름다운 문장을 찾는데서 그 차례가 뒤바뀌는것을 금해야 하며 글을 다듬는데서 순서를 지키는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류협은 글의 풍격에 대하여 논하면서 글의 풍격은 작가의 재능과 글의 문체에 관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체성》편에서 글의 풍격은 작가의 재능(재주, 기질, 지식, 습관)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그 기본류형으로는 8가지 즉 우아한것, 심오한것, 간결한것, 명백한것, 잡다한것, 웅장한것, 신기한것, 부드러운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세》편에서 서로 다른 형식의 글은 서로 다른 풍격적특징을 가진다는데 대하여 《상주문은 고상하고 우아하며 사부, 시, 송가는 아름다우며 격문과 공문은 명확하다...》라고 실례들을 들어 론증하였다. 《풍골》편에서 류협은 글의 풍격에 대한 보편적요구를 제기하면서 글은 《풍골》 즉 멋스럽고 굳센 예술적풍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류협이 론한 창작문제에서 중요한것은 끝으로 어휘, 문장구사에 대한 론의이다.

그는 《정채》, 《성률》, 《장구》, 《려사》, 《비홍》, 《과식》, 《사류》, 《려자》, 《은수》, 《지하》 등의 편에서 창작에서 리용되는 어휘, 문장구사의 여러가지 기교에 대하여 론하였다. 류협은 어휘와 문장의 사용은 글의 내용과 구성, 풍격에 어울려야 한다고 하면서 어휘와 문장의 아름다움과 화려함만을 일면적으로 추구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채》편에서 《감정은 글의 날실이고 어휘는 글의 씨실이다. 날실이 바른 다음에야 씨실이 이루어지게 되듯이 리치가 정해진 다음에야 글이 순탄하게 된다. 이는 글을 쓰는데서 근본으로 된다.》라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작품창작에서 내용과 형식의 통일방도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부족점은 있으나 내용과 형식의 옳바른 결합을 《작품의 근본》으로 내세운것은 그 당시로서는 가치가 있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문심조룡》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셋째로, 비평에 관한 론의이다.

《문심조룡》의 《해정석채》부분을 보면 문학창작의 일반적규칙을 위주로 하여 론하였으나 그속의 일부 글들은 문학비평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였다.

류협은 비평에서 공정성, 객관성을 견지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재략》편에서 문학적재능을 기준으로 력대 작가들의 성과를 평하였으며 이와 함께 작가가 거둔 성과와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주관적재능과 관계될뿐아니라 객관적조건에도 관계된다고 하면서 작가는 시대에 따라 귀해진다고 하였다. 《정기》편에서 류협은 유교의 도덕관에 기초하여 자기가 리상으로 내세우는 작가는 학식이 있고 소박하며 덕과 재주를 다 갖춘 선비라는데 대하여 밝히고 《세월이 어지러우면 홀로 마음을 다잡고 글을 써내야 하며 세월이 좋으면 하늘의 운을 받들어 업적을 쌓아야 한다.》라고 작가의 사명에 관한 자기식의 견해를 제기하였다. 《재략》과 《정기》 두편의 글을 보면 류협이 작가의 재능에 대해 재능과 도덕을 분리시키는 관점에 서있었다는것을 알수 있지만 결코 작가의 도덕적결함을 빗대고 그의 문학적성과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며 문학적재능의 각도에서 작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그가 작가평을 비롯한 비평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견지하는 진보적인 관점에 서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는 《지음》편의 서두에서 음을 듣고 리해하기는 실로 힘들며 음을 듣고 리해하는 사람을 만나는것은 더 힘들다는 견해를 제기함으로써 비평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음을 듣고 리해하는 사람 즉 문학을 리해하고 정확히 평가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기본원인은 비평가들이 자주 옛것을 귀히 여기면서 현재의것을 천하게 여기고 자기의것을 내세우면서 남의것을 깎아내리며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결함을 범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비평을 하려면 이러한 결함들을 범함이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평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당시로서는 매우 긍정할만 한 것이었다.

이상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알수 있듯이 《문심조룡》은 문학창작의 리치, 형상의 원리를 심도있게 밝혔을뿐아니라 문학리론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당시까지의 각이한 형식의 운문 및 산문문체의 변화발전과 대표적인 작가, 작품들에 대한 분석평가 등 문학적성과를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중국의 문학과 비평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문심조룡》은 류협의 세계관 및 문예학적수준의 미숙성으로 인한 일련의 제한성도 가지고있다. 즉 유교관념론과 불교의 신비주의에 빠져있던 그의 세계관적제한성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는가 하면 당시까지 전해오던 일부 문예학적견해들을 분류, 체계화해놓은데 그친것과 같은 제한성도 나타나고있다.

실례로 《도》와 《성인》, 《문》 3자간의 관계를 논할 때 《〈도〉는 〈성인〉에 의해 글로 씌여지고 〈성인〉은 글로써 〈도〉를 밝힌다.》라고 하면서 《성인》의 글은 《도》의 진수를 깨치고 리치에 도통한 글이며 《성인》은 그러한 글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교양한다고 본것, 《도》를 깨친 《성인》의 글은 《6경》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어있으므로 《6경》을 따라배우는것이 곧 《성인》을 따라배우는것으로 되고 창작에서 유교경전들인 《6경》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6경》이 문학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여러 문체들의 원천으로 되어 후세의 여러 문체의 글들에 풍격표준을 제시하였기때문이라고 한것 등은 문학자체의 사명과 발전법칙을 무시하는 관념론적견해로서 《문심조룡》이 가지고있는 심각한 제한성으로 된다.

《문심조룡》은 량만주의적작품이나 창작수법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였으며 악부민요나 산문들을 경시하는 태도를 취한것과 같은 제한성도 내포하고있다.

3. 결 론

《문심조룡》은 이전 시기의 문예학적견해들을 총화하고 문학작품의 창작과 비평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것으로 하여 당대는 물론 후세의 진보적문학발전을 선도하고 추동한 대표적인 문학리론저서, 비평저서로서 중국문학비평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에서 사회과학연구를 혁명실천과 결합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사회과학리론을 새로운 높이로 더욱 발전풍부화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중국문학비평에 대한 연구는 외국문학연구분야의 성과를 풍부히 하고 중국문학의 발전력사에 대한 리해를 가지는데서 의의가 있다.

론문에서는 중국문학비평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학리론저서인 《문심조룡》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분석을 진행하였다.

론문에서 해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위진남북조시기 주요문학리론저서인 《문심조룡》의 구성체계와 그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로, 《문심조룡》에서 제기한 문학의 본도와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 문학과 시대와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로, 《문심조룡》에서 제기한 창작비평론적내용들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였다.

론문에서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명함으로써 중국문학연구 및 교수의 과학리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학생들이 외국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데 일정하게나마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문학비평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교수사업에 구현하여 외국문학교수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며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로 훌륭히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문학, 중국문학사, 비평, 평론